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인하에 나서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지난 8월 28일 폴란드 중앙은행(NBP)은 기준금리를 8.5%에서 8%로 50bp 인하하였음. 또한, 롬바르드 금리와 재할인률도 각각 10.5%와 9%로 100bp씩 인하하였음. 이로써 NBP는 지난 18개월 동안 무려 11% 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음.
- 지난 27일에는 금리인하를 예상한 폴란드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되었으나 시장은 대체로 이번 금리인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분석가들은 오히려 NBP가 금년 중 추가로 50bp 내지 75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임.
- 최근까지 NBP는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금리인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오히려 정부에 대해 재정 긴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음. 그런데 NBP가 금리인하로 정책노선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임. 즉, 지난 4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NBP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여지를 갖게 된 것임.

□ 물가상승 압력 지속적으로 완화

-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체제전환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9%를 기록한 이후 6월에 1.6%, 7월에 다시 1.3%를 기록하였음. 특히,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5.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금년 들

어 물가가 더욱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금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3.5	3.3	3.0	1.9	1.6	1.3

주: 전년동기 대비임.

자료: EIU, Viewswire, Aug. 2002.

- 식품가격 안정이 최근 물가하락의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업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인구의 취업시장 진출 확대에 의한 임금인상 억제도 물가상승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다만, 금리인하에 의한 즐로티貨의 약세가 어느 정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따라 금년도 전체 물가상승률도 NBP의 관리목표 범위인 2~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물가하락에 따라 7%를 넘는 폴란드의 실질금리는 국내경기 침체와 폴란드 수출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잠식의 원인으로 부각돼 왔음.

□ 조심스런 경기침체 탈피 전망 제기

- 지난 8월 20일 통계청(GU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6월 중 전월 대비 3.2% 증가에 이어 연속 2개월의 산업생산 증가로, 일부 분석가들은 폴란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우선 7월 중 산업생산 증가는 7월의 작업일수가 많았고 파산한 Szczecin 조선소 소유 선박 3척의 긴급 매각실적이 포함됨으로써 실제보다 과장된 결과라는 것임. 또한,

지난해 4/4분기의 0.2%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5%에 불과하여, 폴란드 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임.

- 그러나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는 29개 업종 중 21개 업종의 생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동차 판매가 지난 6월의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에서 7월에는 9% 증가로 반전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우선 업계에서는 지난 2년간 처음으로 국산차 판매증가가 나타난 것은 수입중고차에 대한 물품세(excise tax) 부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지출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폴란드 경제가 극도의 내수부진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8월 중 산업생산 결과가 나와야만 좀더 확실하게 폴란드 경기흐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폴란드 경제가 금년에 바닥을 탈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2>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9	2000	2001	2002f	2003f
경제성장률	4.1	4.0	1.0	1.3	2.9

자료: EIU, Viewswire, Aug. 2002.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